

배포 일시	2023. 1. 25. (수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	책임자	과 장 안세희 (044-201-3526)
	해외건설지원과	담당자	사무관 간인숙 (044-201-3529)
보도일시	1. 25.(수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

**원희룡 장관의 원팀코리아,
모듈러 제작을 위한 한-사우디 공동 투자기로
- 2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, 도시농촌주택부 장관,
교통물류부 장관, 투자부 장관 만나 -**

- 해외건설 연 500억불 달성을 위해 원팀코리아 중동 3개국(사우디, 이라크, 카타르)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은 1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야시르 빈 오스만 알-루마이얀(Yasir bin Othman Al-Rumayyan) 국부펀드 총재와의 면담에서 우리기업 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(PIF) 간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MOU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.
- 이번 삼성물산과 PIF 간 MOU는 지난 '22년 11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가 참석한 한-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체결된 두 기관 간 모듈러 협력 MOU의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.
 - 이번 MOU를 계기로, 삼성물산의 모듈러 제작시설을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설립·운영을 추진하는 등 우리기업과 사우디 국부펀드 간 전략적 협력 관계가 구체화 되었으며, 우리 기업들이 모듈러를 활용하여 네옴시티 등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 메가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깊다.
 - 국부펀드 총재와의 면담에서 원 장관은 “우리 기업들은 그린 수소

생산, 키디야 개발협력, 주택단지 및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” 고 강조하면서, “풍부한 도시 개발 경험과 ICT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들이 국부펀드의 홍해, 키디야 사업 등에 참여해 사우디 ‘비전 2030’ 실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” 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이날 오전 원 장관은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가 주최한 도시투자 포럼 개막식에서 ‘스마트시티 정책 및 양국 간 협력현황’ 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였다.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스마트시티를 제시, “사우디가 스마트시티라는 목적지에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도달 하는데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확실한 역할을 하겠다” 라며, 우리 스마트 시티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.

○ 이어서, 국토교통부와 도시농촌주택부 간의 '스마트시티 협력실행프로그램' 체결을 통해, 양국간 협력을 구체화하는 성과를 얻었다. 이번 협력 실행프로그램 체결을 계기로, 공동실무회의를 연 2회 서울과 리야드 에서 번갈아 개최하며, 양국의 정부, 산하기관, 공기업, 민간기업 및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연례 스마트시티 솔루션 박람회를 서울과 리야드 에서 번갈아 개최기로 하였다.

□ 오후에는 교통물류부 살레 빈 나세르 알-자세르(Saleh bin Nasser Al-Jasser)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교통물류부 방한 시 모빌리티 관련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, 지난 원팀코리아 사우디 방문시 공동 개최한 모빌리티 혁신로드쇼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.

○ 원 장관은 “사우디 비전2030의 역점 사업인 국가교통물류전략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한다” 라고 하면서, “한국의 ICT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우디와 한국이 서로 윈-윈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겠다” 라고 포부를 밝혔다,

○ 이에, 살레 빈 나세르 알 자세르 장관은 “사우디의 교통물류전략을 이행해줄 한국 민간 영역의 철도,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소개해주면,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겠다” 라고 화답하였다.

- 또한, 원 장관은 칼리드 알 팔레(Khalid A. Al-Falih) 사우디 투자부 장관을 만나, 양국 간 협력 성과가 기업간 협력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에 크게 공감하며,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에 참여한 행사에서 체결한 총 26건의 MOU를 섬세하게 챙겨나가기로 뜻을 모았다.
- 이와 더불어, 원 장관은 모듈러 공법의 신속성, 친환경성, 안전성 등을 직접 설명하며 제작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하였으며,
-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올해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하면서, 합리적인 가격경쟁력과 우수한 품질을 갖춘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를 차지하는 우리의 중점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G2G 협력채널을 고도화하고 지속적인 고위급 네트워크 가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